

한국의 문화재는 그 자체로 역사와 전통을 담고 있는 무형의 유산이다. 예술, 철학, 종교, 생활방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통적인 가치를 보여준다. 예술 분야에서는 고려·조선시대의 화려한 궁궐과 사찰 건축, 전통 드라마인 국악과 무용, 그리고 서예와 그림 등이 있다. 철학 분야에서는 선·불교 철학, 전통 철학인 태극학 등이 있다. 종교 분야에서는 불교 사원과 절터, 그리고 전통적인 향토신앙 등이 있다. 생활방식 분야에서는 전통 주거 형태인 한옥, 전통 음식인 밥과 국물, 그리고 전통 의상과 액세서리 등이 있다. 이러한 문화재들은 한국의 역사와 전통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자료로 여겨진다.

붙였다. 그리고 그럴싸해 보이기 위해, 어울리는 마스크 테이프를 골라 제본하듯이 정성스럽게 붙였다. 깔스거리는 커터 칼의 자국과 풀칠 때문에 울렁이는 종이. 그걸 작가로서의 첫 명함이라고 생각하고, 군산 북페어에 20부 정도 챙겨갔다.

그런데 그 허술함을 누군가가 ‘책’으로 대했다. 군산 북폐어에서 만난 한 작가님이 내가 만든 작은 책들을 두 손으로 받더니 “직접 만드신 거예요?”하고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얼마를 드리면 되냐고도 했다. 나는 당황해서 “아뇨… 그냥 드리고 싶어서, 만들어 왔어요.”라고 했다. 그러자 그 작가는 순서를 치며, “그냥 받을 수 없죠”하고 책을 대신 자신의 책 한 권을 건넸다.

커터 칼 자국이 그대로 보이던 작은 종이를 쟁치처럼 대하던 표정이 자꾸 떠오른다. 누구도 나에게 계속 쓰라고 강요한 적은 없다. 내 글이 처음으로 ‘손에 잡히는 형태’를 갖춘 순간이었다. 그래서 이번엔 도망칠 수 없다.

한국어로는 “제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저에게 말한 대로 그 사람의 말이 옳았던 것”이라는 표현이 있다. 이 표현은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면모를 갖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말이 옳았던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는 듯한 면모를 갖는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저에게 말한 대로 그 사람의 말이 옳았던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람의 말이 옳았던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는 듯한 면모를 갖는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저에게 말한 대로 그 사람의 말이 옳았던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람의 말이 옳았던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는 듯한 면모를 갖는다.

발행일 2025년 12월 17일
글쓴이 윤재



작은배가 진행하는
<일상묘사 : 수필 합평 모임>에서
탄생한 글입니다. QR 코드를 스캔하면
댓글로 감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글은 jaegunbae.com에서 확인하세요.

글 쓰기 싫어서 쓰는 글

